

일반 연재(I) - 7

발작성 심실상성빈맥에 대한 PROPAFENONE의 임상 전기생리학적 효과

서울의대 내과 : 조성욱, 최윤식, 서정돈, 이영우

1. 연구대상; 표준 12유도 심전도에 의해 발작성 심실상성빈맥으로 진단된 1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자 7명과 여자 8명이었으며 연령층은 18 내지 57세 (평균 40 ± 12 세) 이었다.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에 의해 발작성 심실상성빈맥의 발생기전은 방실결절회귀 (AVNR)가 6명이었으며 방실회귀 (AVR)는 9명으로 이중 3명은 manifest WPW 증후군이었다.

2. 연구방법; Propafenone 투여전후에 EPS를 실시하여 임상전기생리학적 효과를 판정하였으며, EPS에 의해 효과있다고 판정된 환자에게 같은 용량을 투여하며 외래를 통하여 장기관찰을 하였다.

3. 연구결과 ; 1) 동결절기능검사에서 교정 SNRT 및 SACT는 Propafenone투여후 증가의 경향을 보였다. 2) 방실전도간격중 AH, HV 및 PR간격은 Propafenone투여후 각각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 0.05$). 3) 신속 심방 및 심실 자극에 의한 전향전도 및 역향전도의 차단 간격은 Propafenone투여후 증가의 경향을 보였으며, Propafenone 투여후에도 유발가능한 심실상성빈맥의 주기간격도 투약전보다 증가하였다. 4) 심방 및 심실의 절대 불응기는 Propafenone 투여후 증가의 경향을 보였다. 5) Manifest WPW 증후군 3례중 2례에서 Propafenone투여로 전향전도가 모두 차단되었으며 AVRT환자의 방실부전도로 역향전도 절대불응기는 Propafenone투여로 뚜렷한 변동은 없었으나 1례에서 역향전도가 차단되었다. 6) EPS에 의해 AVNRT 6례중 3례(1례 저효, 2례 유효)에서, AVRT 9례중 7례(5례 저효, 2례 유효)에서 효과가 있었다. 7) Propafenone이 EPS로 효과있다고 판정된 환자 10례에 대하여 3내지 11개월간 외래를 통하여 장기관찰한 바 지속성 빈맥재발은 없었다. 8) 입원 및 외래를 통한 관찰중 2명의 환자에서 경한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났다.

4. 결론; Propafenone은 발작성 심실상성빈맥, 특히 AVRT환자의 단기 및 장기 치료에 안전하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항부정맥제로 사료된다.